

ICEIC '98 국제학술회의

● 일시 : 1998년 8월18일~20일 ● 장소 : 중국 연변대학

제4회 ICEIC 국제학술회의가 지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중국 연변대학에서 2백여명의 동포과학자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1백50여편의 논문이 발표된 이번 학술회의는 대한 전자공학회 후원으로 열렸는데 한국측에서 21세기 정보통신산업의 전망을 삼성, 현대 및 LG에서 특별강연으로 발표해 성황을 이루었다.



鄭萬永
(경상대 석좌교수)

대한전자공학회가 후원하고 중국 연변대학에서 주최한 ICEIC '98 (199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Informations and Communications) 국제학술회의가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연변대학에서 개최되었다.

1991년도 제1회 대회를 중국 연변대학에서 개최한 이후 금년으로 4회째를 맞이한 본 학술회의는 중국 길림성(조선족 자치성) 연길시의 연변대학(교장: 박문일) 이공학원(원장: 김규환)에서 2백여명의 동포 과학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총 1백5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한국측에서 21세기 정보통신산업의 전망을 삼성, 현대 및 LG에서 특별강연으로 발표하여 마지막까지 진지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또한 본 학술회의는 정보통신 및 전자분야에 관련된 한국계 동포 과학자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연변의 중국 교포를 중심으로 한국계 동포들이 대거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북한의 전자, 정보, 통신관련 과학자들도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단순한 학술적



▲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의견 교환이 아닌 그 분야에 관련된 한민족의 학자들의 만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북한측 사정으로 북한 학자들이 전원 불참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연변대학 종합대학은 10개 학원(단과대학)으로 구성되었고, 의대(1948년도)로부터 대부분이 1949년에 창립되었다. 다만, 과기학원만 1991년에 한국 종교계가 창설, 합병되었다.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끝낸 한국에서의 참가자들은 모두 새벽 4시에 호텔을 떠나 백두산 등정과 폭포 관광 온천을 즐겨 백두산 정기를 온 몸으로 충만시켰다.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연결에서 심양을 거쳐 4박5일의 일정을 무사히 끝내고 예정대로 21일에는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

돌이켜보면 5년 전의 연변대학과 연변시가가 근대화되어서 호텔도 대우호텔(5성)은 국내 힐튼호텔과 비교해도 부족한 점이 없었다. 특히, 연결에서 용정까지는 자국산 시멘트로 준고속화가 되어 있었고, 백두산까지도 연장될 것이라고 하였다. 갈 때와 올 때 모두 심양국제공항을 통했으나 2년 전보다도 도시 전체가 국제박람회 준비로 옛날의 건물이나 가두 상황에서 어두웠던 면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지난 우리의 70년대처럼 발전 속도가 빠르고 여성들의 활약이 명실공히 남녀동권이며, 직장의 귀천없이 새벽 거리청소도 여성들만으로 하고 있는 점을 보고는 우리의 IMF 하에서의 실직자 및 여성들의 활동에서 우리는 얼마 안가서 추월당할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현재의 우리 입장을 개탄하기도 하였다. ㉞